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6년 9월 20일(일) 제1606호



‘드림온브릿지’를 설치 받은 정은희 선교사(아프리카 남수단).

“선교지와 복음을 잇는 다리가 되어주세요!”

9월 19~20일 CGN 정기후원 행사, 특집 다큐 ‘땅끝의 증인들’ 공개
위성 인터넷 지원 프로젝트 ‘드림온브릿지’ 캠페인 시작

CGN과 함께 미디어 선교사로 헌신하는 정기후원 행사가 열린다. ‘선교지와 복음을 잇는 다리가 되어주세요’를 주제로 9월 19일(토)과 20일(일)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진행된다. 9월 20일(일) 일요주일에배에서는 CGN 정기후원 참여를 독려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춘천새순교회, 방주교회, 안양제일교회 등 협력 교회에서도 10월 중에 CGN 정기후원 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CGN 정기후원 행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전화(02-796-2243) 또는 CGN 웹사이트(cgnkorea.net),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 후원자는 증액도 가능하다. 가족과 전도 대상자 이름으로도 후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정기후원의 달을 맞아 CGN이 특집 다큐멘터리 ‘땅끝의 증인들: 출동! 섬마을 변방장’을 공개한다. 9월 19일(토) 0시 기독교 OTT 풍당을

시작으로, 같은 날 오전 10시 CGN 유튜브, 9월 20일(일) 오전 10시 30분 CGN TV에서 방송한다. CGN 정기후원 행사를 기점으로 ‘드림온브릿지(DreamOn Bridge)’ 캠페인도 본격 시작한다. ‘드림온브릿지’는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선교지의 선교사들에게 저궤도 위성 인터넷(스타링크)을 연결해 주는 사역이다. 선교 현장에 안정적인 온라인 환경을 조성해 선교사들이 필요한 자료와 말씀을 인터넷에서 찾고, 사역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장(場)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관련기사 6면).

올해 개국 21주년을 맞은 CGN은 광고 없이 오직 후원으로 운영되는 유일한 기독교 미디어다. 후원자들의 참여로 복음 콘텐츠를 제작하고, 선교 현장을 지원하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온누리사역축제 ‘하이브리드 교회’

10월 13~15일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 및 부속실

2026 온누리사역축제가 ‘하이브리드 교회’를 주제로 열린다. 10월 13일(화)부터 15일(목)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과 부속실에서 진행된다. 주제 강의, 선택 강의, 저녁 오픈 집회 등이 이어진다. 저녁 오픈 집회 시간 선교관 2층 꿈아이홀에서 탁아방을 운영한다(만 36개월~초등 3학년).

참가를 원하는 성도들은 소속 공동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은 성도들은 ‘ONCARE’ 앱을 설치하면 개별 신청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리더십 및 임직 훈련생은 최소 하루 이상 반드시 참석해야 한

다. 전체 일정 참가자에게는 이재훈 위임목사 신간 <축매적 리더십>을 선물로 증정한다.

이 기간 교회에 올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교회 주차장과 온누리청소년센터 임시주차장은 3인 이상 탑승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한강시민공원 2,3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비를 지원한다. 이촌역, 서빙고역,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에서 서빙고온누리교회를 오는 셔틀도 운행한다.

문의: 02-3215-3234(행사 문의)

02-3215-3220(주차, 셔틀 문의)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이재훈 위임목사 목회서신

새로운 사십 년의 첫해를 함께 열며

무더위가 물러가고 열매를 거두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각자 맡겨진 자리를 묵묵히 지키시는 제직 여러분께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창립 40주년을 맞아 ‘온누리사역축제’를 열었습니다. <지금 여기, 사도행전>을 패내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기록하였고, 열네 개 사역본부가 저마다 사역매뉴얼을 정리하여 사십 년의 사역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한 지점을 지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1주년을 맞이합니다. 저는 올해를 마흔한 번째 해라고 부르기보다 ‘새로운 사십 년의 첫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사 43:18-19).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에 안주하면 교회는 어느새 과거의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온누리교회의 다음 사십 년은 지금 제직 여러분이 어떤 교회론과 목회철학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돌아보면 과거 여러 차례의 온누리사역축제는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 주신 교회론과 목회철학을 함께 듣고 나누며 미래의 온누리교회를 꿈꾸던 자리였습니다. 최근 <축매적 리더십>을 준비하면서 하 목사님의 리더십을 정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역축제 때마다 전해 주셨던 말씀들을 다시 읽으며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들이 온누리교회 리더십들의 마음을 빚어 왔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 소명을 감당해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온누리사역축제는 외부 교회의 리더십들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자리이기 이전에, 온누리교회 제직들이 하나 되어 교회론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온누리사역축제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온누리사역축제에서 저는 ‘하이브리드 교회’라는 주제로 강의하려고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은혜와 진리는 서로 반대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둘 중 하나를 고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이 둘은 하나였습니다. 복음에는 이렇게 교회가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 없는 양면이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 은혜와 진리, 사랑과 정의, 거룩과 화평, 교제와 선교가 그것입니다. 이 다섯 쌍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볼 수 없습니다.

교회의 목회 실천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관계와 제도, 친밀함과 개방성, 돌봄과 훈련, 모달리티와 소달리티, 복음전도와 사회참여를 함께 붙들어야 합니다. 교회안의 많은 갈등은 자기에게 익숙하고 강한 쪽만 더 강하게 붙들고 다른 쪽을 놓아버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것이나 저것이나(Either /Or)를 몰으며 갈등하는 교회가 아니라, 둘 다(Both/And)를 붙들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이것이 교회가 교회답게 변화되는 길입니다.

이번 주제 강의를 통해 우리 교회의 소명을 이 자리에서 함께 다시 세우고자 합니다. 오후에는 각 사역팀이 하이브리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자기 사역을 어떻게 더 전문성 있는 사역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발표하고 함께 논의합니다. 저녁 집회에는 복음 안에서 우리와 동역하고 있는 두 분의 담임목사님, 지구촌교회 김우준 목사님과 선한목자교회 김다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일터를 소홀히 할 수 없기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 형편을 충분히 이해하며,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다만 일정을 조정할 수 있거나 그 기간에 참석이 가능한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자리를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는 몇몇 사람이 대신 채울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앉아 계셔야 온누리교회의 다음 사십 년이 그려집니다.

새로운 사십 년의 첫해를 여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사십 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행하실 새 일을 함께 바라보며, 제직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2026년 9월

온누리교회 위임목사 이재훈 드림



온누리교회 미래성장분과위원회
‘AI 시대의 제자도’에 대한

설문조사

(관련기사 12면)

나를 따르라

Follow Me! Deny yourself and take up the cross (Mt 16:24)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유다야,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너희 인애는 아침 구름과 같고 금방 사라지는 새벽이슬과 같다”(호 6:4).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그런데 그 앞 구절에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찢으셨지만 우리를 고쳐 주실 것이다. 그가 때리셨지만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다”(호 6:1).

돌아가겠다고 하는 백성들의 고백을 들으신 바로 뒤에 하나님이 탄식을 하셨습니다. 백성들의 고백이 거짓이어서가 아닙니다. 이 고백을 여러 번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제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이슬 같은 돌이킴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같은 죄를 놓고 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이 반복이 무서운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사기>에 나타난 영적인 악순환을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반복이기 때문입니다.

하향하는 나선형 ‘영적 악순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 백성은 진노 가운데 고통스럽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합니다. 하나님이 그 신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 주십니다. 사사가 있는 동안 잠시 구원을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은 평안해지면 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갑니다. 이 모습을 반복합니다. 이 반복이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전목마처럼 같은 자리를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전 사이클보다 한 단계 아래로 내려가는 하강 곡선입니다. 하향하는 나선형(Downward Spiral), 즉 영적 악순환입니다.

<사사기> 2장 말씀이 바로 이 반복을 보여줍니다. 이 사이클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숭배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대적에게 불이셔서 괴롭게 하셨고, 그들이 신음했고,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구원을 주셨지만, 그들은 고통 가운데 신음했을 뿐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없어서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한 바퀴 돌 때마다 한

사사기 강해(2)

영적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사사기 2:10~3:2

층 더 내려갑니다. 고통은 더 심해지고, 사사들도 수준이 점점 낮아집니다. 웃니엘부터 시작하는 사사가 삼손에서 끝나는데, 그는 최악의 사사였습니다. 그 시대의 지도자 수준도 점점 내려가는 것입니다. 영적 악순환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타락하고, 더욱 고통스러워지고, 지도자도 더욱 패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대의 역사가, 우리의 삶이 이런 영적 악순환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죄로 계속 넘어지고, 고통을 겪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건져 주시지만, 평안해지면 다시 죄로 돌아가는데 그 죄는 전보다 더 깊어져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될 때

“그 세대가 모두 조상 곁으로 돌아갔고 그들을 뒤이어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자라났습니다”(10절).

‘다른 세대’라고 했습니다. ‘다음 세대’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말씀에는 3세대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세대까지도 그 일을 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심각하지 않았습니 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듣기는 했을 것입니다. 이야기로는 들었을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 요단강이 갈라진 역사,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듣기는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한 것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될 때, 영적 악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리에 우상이 들어온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에 있던 바알과 아스다롯 신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 비와 폭풍을 다스리며 그 시대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준다고 약속하는 신들이었습니다.

왜 하필 이 신들이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자란 세대는 농사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이웃들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들로부터 “비를 내려주는 신을 잘 섬기면 곡식이 잘 된다”고 들었을 것입니다. 농사를 지은 경험이 없더라도, 노력하면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인데,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방식을 그대로 따

라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모습이 간간히 보입니다. 첨단 장비를 만드는 공장을 차려놓고, 그 기술을 개발한 CEO가 돼지머리를 앞에 놓고 “이 공장이 잘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빙니다. 누군가로부터 본 것을 배운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해야 이 기업이 잘될 것입니다”라고 제안을 받은 것입니다. 사사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면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결심을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농사만은 확실히 잘하고 싶다”라는 불안과 염려에서부터 우상이 파고들어 오는 것입니다. 원칙보다 실속을 처리는 순간, 우리는 한 계단을 내려가는 것입니다. 어느 구약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 우상들은, 옛 신들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 다만 옷을 갈아입었을 뿐이다.” (이안 프로반)

하나님의 마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자기 자신을 팔고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여호와와 명령을 지키며 걸어왔던 길에서 금세 돌아섰 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행하지 않았습니다”(17절).

‘자기 자신을 파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팔고 숭배했습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 결국 자기 자신을 우상에게 바치는 일입니다. 그 결과 속히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이클을 끊을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는 다섯 가지 단계로 하나님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먼저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18절).

사사 시대 악순환이 끊어지는 은혜가 나타 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 어서가 아닙니다. 백성들은 그저 고통 속에 신음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신음하는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백성 쪽에서는 돌이킴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돌이켜 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먼저 돌이켜서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돌이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악순환에 빠진 이들에게는 기도조차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신음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음을 기도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마음을 돌이켜서 찾아와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행한 죄의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의 진정한 사사입니다.
영적 악순환은 우리의 힘, 기술, 방법, 지도자가 끊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치하심의 역사만이 악순환을 끊습니다.”

결과까지 면제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사랑하기에 진노하시고, 대적에게 넘긴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진노하시고, 대적에게 넘기십니다.

14절에 나오는 ‘팔아넘기셔서’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앞서 ‘팔다’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2장 17절에서 “다른 신들에게 자기 자신을 팔고 숭배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우상에게 자신을 팔았기에, 하나님이 원수들의 손에 팔아넘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린양의 피로 구속하신 백성들을 완전히 넘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노의 뜻을 깨닫는 것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실마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셔서, 진멸시키려고 진노하시고 원수들에게 넘겨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진노하셨고, 대적에게 잠시 넘기신 것입니다. 진노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언제나 대적의 손만 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그들의 손만 봅니다. 그러나 <사사기> 말씀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 손은 우리를 아프게 하려고, 버리려고 치시는 게 아닙니다. 돌이키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더 귀하게 사 용하려고 잠시 진노를 허락하셔서 대적들의 손에 붙이시는 것입니다.

남겨둔 민족들로 하여금 백성을 시험하고 훈련하게 한다

셋째, 하나님의 손은 남겨둔 민족들로 하여금 백성을 시험하고 훈련하게 하십니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약속을 어기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남겨 놓은 민족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로부터 몰아내지 않을 것이다’”(20~21절).

하나님이 왜 남겨둔 민족들로 하여금 그 백

성을 괴롭히도록 하십니까?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은 모든 가나안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험하기 위해 여호와께서 남겨 두신 민족들입니다. 이전에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쟁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삿 3:1~2).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이 다시 나옵니다. 악순환이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군대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여기고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어떻게 무너뜨리셨는지를 통해서 그들이 그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시험이 필요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치르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려고 전쟁터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엄청난 전쟁을 치르며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대가 자신들의 전쟁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려고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전쟁은 치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순종했다면 여호수아 시대에 끝났을 일입니다. 남겨진 가나안은 어떤 모습이든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결과를 우리를 시험하는 교실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시험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더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남겨진 가나안이 있다면, ‘왜 이 문제가 아직 그대로인가?’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겨두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훈련하시고, 악순환이 끊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로 훈련하면서 우리에게 옵니다.

악순환 끊는 구원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에게서 온다

넷째, 악순환을 끊는 구원은 백성들에게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에게서 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사사들은 그들을 침략자들의 손에서 구해 냈습니다”(16절).

사사는 백성들이 투표해서 뽑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여호와가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와 함께하셨습니다. 사사들이 강해서 건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전체에서 이스라엘은 한 번도 자신들의 힘으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구원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사들에게조차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악순환은 끊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에게는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기한이 있었습니다. 사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나마 하나님이 함께하신 은혜 속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요청하지도 않고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이 그 사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사가 사라지면 또다시 독이 터져서 우상숭배 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입니다. 만일 사사가 죽지 않고 지속이 된다면, 사사가 외부의 대적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까지 구원할 수 있다면, 구원의 역사가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사사기>에 반복되는 순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지 않는 사사, 영원히 있는 사사, 외부의 대적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까지 변화시켜 주시는 사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적 악순환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집니다.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들이라고 말하지만, <사사기>에서 ‘사사’라는 칭호

로 불린 이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부를 뿐입니다. 한 분만 사사라고 불립니다.

“...심판자인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족속 가운데 누구를 심판하시는지 지켜봅시다”(삿 11:27).

이 심판자가 영어로 ‘Judge’, 사사입니다. <이사야> 33장 22절에서도 “여호와와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와 우리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사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할 때 사사 시대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 다윗으로 이어집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떠한 사사도, 지도자도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만 구원이 있다.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우리의 사사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적만을 무너뜨리는 사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심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사가 사는 날 동안’이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보내신 진정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십니다.

사사 시대는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단의 마지막 바닥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를 다시 건져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의 진정한 사사입니다. 영적 악순환은 우리의 힘, 기술, 방법, 지도자가 끊지 못합니다.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통치하심의 역사만이 악순환을 끊습니다. 영적 악순환을 끊어내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What Would You Say?)

생명은 언제 시작될까?

낙태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누군가 “인간의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배아는 그저 세포 덩어리일 뿐이다”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배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떠올리는 모습과 달라서 생명이 수정되는 순간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기 쉽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이 어느 시점에서는 시작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인간의 생명은 언제 시작되는가?

첫째, 생명은 출생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생명이 출생과 함께 시작된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그렇게 말하면 태어나기 하루 전 자궁 안에 있던 아기는 살아 있지 않았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태어난 순간 살아 있는 한 인간이 출생 하루 전에는 살아 있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유일한 차이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이 출생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생명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도 아니다. 많은 사람이 “아기가 자궁 밖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게 되는 순간부터 인간 생명이 시작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에도 문제가 있다. 우선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은 의료 기술에 따라 달라진다. 오늘날에는 임신 24주에 태어난 아기도 생존할 수 있지만, 200년 전에는 불가능했다. 또한 생존 가능성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부유한 나

라에서는 가난한 나라에서 불가능한 의료적 처치를 아기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선진국의 임신 24주 아기가 밀립에 있는 임신 24주 아기보다 더 ‘살아 있다’는 뜻인가? 물론 아니다. 따라서 생명은 자궁 밖에서 생존 가능 여부가 아닌 다른 기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셋째, 생명은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순간에 비롯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생명체가 오직 다른 생명체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에서도 살아 있고, 성장하며, 인간 발달의 여러 단계를 거쳐 가는 능력이 있다.

그렇다면 생명이 출생할 때도,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게 되었을 때도, 심장이 뛰기 시작할 때도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언제 시작되는가?

생명은 수정, 곧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순간 시작된다.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 살아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하나의 온전하고 살아 있는 생명체가 생겨난다. 이 생명체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당신과 나도 마찬가지다.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바로 그 순간, 부모와 구별되는 고유한 존재인 우리가 존재하기 시작했다.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은 성장하고 발달할 시간뿐이었다.

생명은 출생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태어나기 하루 전에는 살아 있지 않았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생명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게 되는 시점에 시작되는 것도 아니다. 생존 가능성은 어느 시대에, 어느 곳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생명은 심장이 뛰기 시작할 때 시작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려면 살아 있지 않은 존재에게서 어느 순간 심장 박동이 생겨났다고 믿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은 답은 하나다. 생명은 수정, 곧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순간 시작된다. 과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며, 논리적으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론이다.

누군가가 “인간의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배아는 그저 세포 덩어리일 뿐이다”라고 말한다면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라.

“생명은 출생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생명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도 아니다.”

“생명은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순간에 비롯되는 것도 아니다.”



원문 영상 QR

“생명은 출생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생명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도 아니다.”

“생명은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순간에 비롯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배아가 처음 몇 주 동안에는 살아 있지 않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배아는 심장이 뛰기 시작하기 전부터 살아 있는 존재여야 한다. 그렇다면 심장이 뛰지 않아도 살아 있을 수 있다는 뜻인가? 그렇다. 사실 바로 이 점에서 갓 수정된 배아는 기능적인 면에서 이미 태어난 사람보다 놀라운 능력을 보여 준다. 배아는 당신과 내가 계속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필요로 하는 심장 박동이 아직 없는 상태

유전적으로 어머니, 아버지 모두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존재다. 물론 배아는 이미 성장한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만 인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가 이미 넘어서는 것인가?

폴라로이드 사진을 생각해 보라. 처음에는 검은 얼룩 같은 것들만 보일 것이다. 하지만 사진을 찍는 순간 이미 그 모습은 사진 속에 담겨 있다. 단지 사진이 완전히 나타날 때까지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영역주권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정술 성도
(마포공동체,
온누리세계관학교)

“취미생활과 신앙 생활은 구분해야 하지 않나요?”

교회에 러닝(running) 모임이 만들어 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한 성도의 반응이었다. 왜 신앙과 러닝의 조합에서 이질적인 느낌을 받았을까? 우리는 신앙생활이란 예배, 찬양, 기도, 성경 공부, 선교활동 등을 하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반면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인 운동, 취미, 직장, 가정 등은 ‘일상생활’이라고 생각한다. 신앙과 일상은 구분되어야 할까? ‘교회에서 러닝 모임을 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하려고 한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영역이 과연 존재하는가?”

아주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어쩌면 사소해 보이기도 하는 영역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개혁주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영역주권>을 통해 삶의 다양한 영역이 각각 고유한 질서와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강조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영역을 교회가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의 주

다. 일하는 직장도, 가족과 함께하는 가정도, 친구와 운동하는 자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시간과 돈, 건강, 내가 내뱉는 말과 맺는 관계까지도 하나님과 무관한 사적인 영역이 아니다. 우리는 마땅히 각자가 속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소임에 충실하고,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살아감으로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혹

“예수님, 이곳도 주님의 것입니다.”

영역주권을 내 삶에서 바로 세우는 일은 바로 이 고백에서 시작될 것이다.

권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우리에게 신앙이란 내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라는 것이다. 신앙은 교회 안에, 삶은 교회 밖에 나누어 놓은 것은 아닌지, 내 삶에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교회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

내가 속한 영역이 지나치게 세속화되어 있다면, 그 영역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와 분별을 구하고 자리를 지켜야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영역을 더 많이 ‘신앙화’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나의

삶이 이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시각과 태도를 새롭게 하여 이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 고민하고 결단하게 만들 것이다.

예배하는 나와 일하는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며, 교회 안의 나와 교회 밖의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다. 내가 서 있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 사실을 인식한다면 러닝도 단순한 취미가 아니고, 직업도 단순한 생계 수단이며, 가정도 단순한 사생활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리이며,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할 소명의 현장이 된다.

영역주권은 거창한 데서 시작되지 않는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곳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직하고 사랑하며 온유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 이곳도 주님의 것입니다.”

영역주권을 내 삶에서 바로 세우는 일은 바로 이 고백에서 시작될 것이다.



2026년 추석 감사예배 및 추모예배

가 · 정 · 예 · 배

가정예배 지침

1)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헌법 <예배와 예식>편에서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지켜 온 명절과 국경일 등은 우리의 교회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배의 계획과 설교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온누리교회는 절기에 맞는 예배 자료를 성도에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2) 추모예배는 죽은 자를 예배하는 제사와는 완전히 다른 예식이며, 죽은 자를 추억하며 슬퍼하는 추도예배와도 다릅니다. 사랑했던 가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억하며, 한

영혼을 사랑하여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을 지켜 죽은 자를 경배하는 제사상에 절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향이나 촛불을 켜지 않으며, 지방을 쓰거나 음식상을 차려 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했던 가족의 사진을 놓고 그리워하며 생전의 좋은 추억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추석 감사예배의 경우 가족들이 둘러앉아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나눈 뒤 검소한 선물과 함께 가족별 장기자랑을 하거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사랑을 실천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명절이 될 것입니다.

가정예배 순서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주께 와 엎드려(경배와 찬양 304장).....	다같이
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출애굽기> 3:1~5.....	가족 중에서
설교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설교자
감사와 기도제목 나누기		다같이
	(돌아가면서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기도제목을 나눈다.)	
중보기도		다같이
찬송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찬9, 통53).....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들어가는 말

예전에 TV에서 ‘보험금을 탄 나무’ 이야기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충청도 어느 마을을 지나가던 큰 트럭이 마을을 지켜준다

는 신령한 나무를 들이받아 쓰러뜨렸습니다. 이후 마을에는 우환이 생겨났고, 사람들은 보험금을 받아 나무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때부터 우환이 사라지자,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에 최고의 경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에 이보다 더 신기한 나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불붙은 떨기나

무가 타지 않은 사건’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던 중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목격하고 다가가려 하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며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가까이 오지 말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출 3:5). 모세의 체험은 앞의 나무 이야기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함의 차이’입니다. 두 나무가 있던 곳 모두 거룩한 곳으로 여겨졌지만, 거룩한 이유가 달랐습니다. 충청도의 나무는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믿었지만, 모세가 선 곳은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영향력의 차이’입니다. 충청도의 나무는 사람들이 그것을 섬기게 만들었지만, 모세는 나무가 아니라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신앙은 떨기나무에 머무르지 않고 신앙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란 ‘어떤 대상을 존경하고 찬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영어 ‘worship’의 ‘wor-’는 ‘worth(가치)’에서 왔다고 합니다. 즉 온전한 예배란 하나님을 그분의 가치에 합당하게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은, 처음 본 것은 나무였지만 실제로 만난 것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그분의 가치에 합당하게 섬기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가 시간과 장소의 개념 이상임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예배의 자리에 한 번 참여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과 장소가 큰 의미로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진심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곧 다른 ‘우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계실 수 있는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우리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 순서에 따라 예배드리는 것에 익숙해 있었지만, 그것이 예배의 전부는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는 시간과 장소, 사람과 순서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그분의 가치에 합당하게 경배하고 찬양하며 섬겨야 합니다.

나가는 말

2026년 추석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남으로 참된 예배의 삶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사 42:8, 개역개정).

형식이 있다고, 예배자가 있다고 모두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헛된 것을 예배하면 그 예배는 우상숭배가 되고 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건이 됩니다. 정결하고 진정한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만 시작됩니다.

추 · 모 · 예 · 배

추모예배 순서

오늘 우리는 고(故) 000님을 추모하며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묵도	<시편> 18:1~3.....	다같이
찬송	축복하소서(경배와 찬양 402장).....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대표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열왕기상> 17:8~16.....	가족 중에서
설교	 최고의 대접을 위한 준비.	설교자
찬송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찬429, 통489).....	다같이
추모하는 이야기		다같이
	(다같이 사랑했던 가족을 기억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좋은 추억들을 나눈다.)	
주기도문		다같이

최고의 대접을 위한 준비

들어가는 말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가 ‘축복(祝福)’입니다. 우리는 복이신 하나님께 받은 대로 서로를 축복하며 높이고 돌봅니다. 이렇게 남을 높이는 것을 ‘대접(待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척사대접’, ‘황제대접’ 같은 표현처럼 중요한 사람일수록 더 잘 대해줘야 한다는 생각은 이미 생활

의 상식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은 ‘대접을 위한 준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손님 맛을 준비, 미래를 대비하는 준비,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준비까지 말입니다. 이 중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준비’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드릴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비극적이게도 우리 속을 다 뒤져봐

도 ‘선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기록합니다”(시 14:1 이하, 53:1 이하; 롬 3:11~12).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사건은 최고의 대접을 고심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전해줍니다.

첫째,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는 둘 다 의지할 것도, 대접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를 대접할 사람이 있다”라며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그녀 역시 가뭄으로 대접할 것이 없었고, 엘리야는 작은 떡 한 덩이뿐인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과부의 가정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두 사람은 서로 놀라운 대접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풍성한 대접을 받고, 사르밧 과부는 끊이지 않는 곡식과 기름,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받

게 됩니다. 두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만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쁨과 감격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셋째, ‘받은 복을 나눌 결심과 실천’입니다. 우리가 대접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함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도 서로에게 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 받은 마지막 것을 서로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최고로 대접해 주시기 위해 이 상황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받은 복을 나눌 결심을 했고, 기쁘게 실천했습니다.

나가는 말

하나님은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우리를 먼저 대접해 주십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계획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마 7:7~12).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대접하라”라는 말씀에 친히 본이 되어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드릴까’ 생각하기 전에, 어떤 복을 받았는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복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대접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최고로 대접해 주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CGN 정기후원의 달

선교 현장과 CGN 그리고 나(후원자)

선교의 삼겹줄 ‘드림온브릿지(DreamOn Bridge)’ 캠페인

선교의 성패는 ‘연결’에 달려 있다. 글로벌 선교 미디어 CGN이 위성방송부터 셋톱박스, IPTV, OTT, 이제는 인터넷까지 목숨 걸고 새 매체로 갈아타며 연결을 시도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선교지에서 단절은 곧 선교의 실패와 그 의미가 갈기 때문이다.

이 연결은 CGN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선교 현장과 CGN 그리고 나(후원자)로 이루어진 ‘선교의 삼겹줄’이 하나 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CGN ‘드림온브릿지(DreamOn Bridge)’ 캠페인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이유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이번에는 인터넷이다. 디지털 사각지대에서 인터넷만큼 정보와 교육, 소통과 미디어 선교를 연결하는 유용한 매체가 없기 때문이다.

CGN ‘드림온브릿지(DreamOn Bridge)’ 캠페인은 디지털 사각지대에 새로운 ‘다리’를 놓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선교지에 저궤도 위성 인터넷(스타링크)을 지원하는 사역이다. 성도들의 후원이 CGN의 손을 잡고 선교지로 달려간다. 그 걸음이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힘을 빌려 선교사들에게 날개를 달아준다. 그 연결이 선교 현장과 CGN, 그리고 내가 만든 ‘선교의 삼겹줄’이다.

선교사가 콘텐츠 찾고, 선택해서 활용하고, 나누는 ‘새(新) 미디어 환경’

올해는 CGN 개국 21주년이다. ‘선교의 내일을 더하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다. 그 방향은 늘 하나다. 선교 현장에 더 빠르게, 더 유용하게 복음을 실어 나르는 사명 완수다.

CGN은 개국 첫날부터 쉽지 않았다.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거침없이 변화했다. 미디어선교 방식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확장해 나갔다. 2005년에는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라는 비전을 품고 전 세계 한인 선교사와 디아스포라의 영적 돌봄을 위해 위성방송을 시작했다. 그해 ‘드림온 캠페인’을 시작하고 선교지에 위성 안테나를 설치했다. 당시 최고의 매체를 활용해 복음을 들고 선교 현장을 찾아갔다. 아프리카와 몽골, 괌 등으로 방송 영역을 넓히고, 케이블 TV와 IPTV, 유튜브, 국내 최초 기독교 OTT 플랫폼 ‘풍당’에 이르기까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발맞춰 지평을 빠르게 넓혀왔다. 그 변화와 도전 속도에 감탄하지 않은 이들이 없었다.

그리고 올해, CGN이 ‘드림온브릿지’ 캠페인



1. 온누리TV 개국. 2. 위성안테나 설치. 3. CGN 중계차량. 4. 드림온플러스 셋톱박스. 5. CGN 모바일 서비스와 풍당 2.0. 6. 드림온브릿지 설치 현장.

과 함께 또 한 번 비상한다. 위성 인터넷으로 또 한 번 옷을 갈아입는다. 드림온브릿지(DreamOn Bridge) 캠페인은 디지털 환경이 매우 열악한 선교지와 선교사들에게 저궤도 위성 인터넷을 지원한다. 디지털 사각지대에 위성 인터넷을 설치해서 선교사들이 안정적으로 온라인 환경을 선교에 이용하도록 돕는다.

과거 드림온 캠페인이 선교지에 위성 안테나를 설치해서 CGN 방송을 ‘받아보는’ 환경을 마련했다면, 드림온브릿지 캠페인은 위성 인터넷을 연결해서 선교사가 꼭 필요한 콘텐츠를 직접 ‘찾고, 선택해서 활용하고, 나누는’ 미디어 환경을 만드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선교사를 미디어 콘텐츠의 수혜자를 넘어 적극적으로 미디어를 활용하는 사역자로 세우는 게 목표다.

위성 인터넷 설치, 환경 개선 그 이상의 의미

벌써 위성 인터넷을 설치해서 선교의 장(場)을 넓히는 선교사들이 있다. 아프리카 우간다 음발레에서 어린이·농장·커뮤니티 사역을 감당하는 허현식, 이효숙 선교사 부부가 그 주인공이다. 그들에게 인터넷은 사역을 이어가는 핵심적인 기반이다. 그런데 사역지가 도시에서 9km나 떨어져 있어서 인터넷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동영상 하나 전송하는 데만 3~4시간 이상 걸린다. 온라인 모임 중에 연결이 끊겨 노트북을 들고 인터넷이 잘 잡히는 곳을 찾아 이동해야 할 정도다.

그런데도 온라인 교육과 소통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인터넷은 한국어로 된 말씀과 설교를 들으며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필요한 선교 자료를 구하며, 한국 교회 및 동역자들과 소통하

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 열악한 환경에 CGN이 찾아왔다. 그리고 위성 인터넷을 연결해줬다. 허현식, 이효숙 선교사 부부에게 위성 인터넷 연결은 환경 개선 그 이상의 의미다.

“선교사들이 새로운 사역을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CGN이 그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던 미디어 사역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직접 시도해 볼 기회가 저희에게도 생겼습니다. 위성 인터넷이 연결되면서 그동안 온라인 환경 제약으로 생각하기조차 어려웠던 일들을 시도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어린이 사역과 교육 사역에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찾아 활용하면서 새로운 사역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허현식, 이효숙 선교사 부부와 CGN의 인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아프리카 우간다 진자 지역에서 사역할 때도 CGN이 위성 안테나를 설치해 줘서 한국어로 된 방송을 시청한 적 있었다. 위성방송이 복음 콘텐츠를 수신하는 역할이었다면, 드림온브릿지는 선교사가 필요한 콘텐츠를 직접 찾고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훨씬 크고 많다.

“예전에는 틀어주는 방송을 시청하는 소극적인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선교사들이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 필요한 자료를 찾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교사만의 공간도 만들어 주셔서 보다 능동적으로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할 길이 열렸습니다. 사역하면서 직접 촬영한 영상이나 자료도 플랫폼에 올리고, 저희의 사역을 소개할 수 있다는 점도 매우 고무적입니다.”

9월 19~20일 CGN 정기후원 행사

허현식, 이효숙 선교사 부부처럼, 열악한 환경의 선교지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가능해졌다. 선교 현장과 CGN 그리고 나를 이어준 ‘드림온브릿지(DreamOn Bridge)’ 캠페인 덕분에이다.

“선교사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사명을 교회와 공동체, 후원자들이 힘을 합쳐 새로운 사역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기쁨입니다. ‘드림온브릿지(DreamOn Bridge)’ 캠페인에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서 선교지의 수많은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영의 양식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허현식, 이효숙 선교사 부부의 말처럼, 선교지에 위성 인터넷을 연결하는 일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 선교사 가정이 세워지고, 교육의 기회가 열리며, 주민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활짝 열린다. ‘선교의 삼겹줄’이 더욱 견고하게 이어져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 엄청난 변화를 실천할 기회가 왔다. 9월 19일(토)과 20일(일) CGN 정기후원 행사가 열린다.

문의: 02-796-2243



드림온브릿지를 지원 받은 허현식, 이효숙 선교사 부부.

CGN 전진국 대표와 함께

“마음 깊은 곳에 위로와 울림을”

K-CCM 글로벌 오디션 ‘힐링보이스’ 기획 의도와 방향

글로벌 선교 미디어 CGN이 ‘풍당’ 론칭 5주년을 맞아 K-CCM 글로벌 오디션 ‘힐링보이스’를 선보인다. 9월 20일 오후 5시 첫 방송되며, CGN TV, 유튜브, 풍당에서 시청할 수 있다. ‘힐링보이스’를 기획한 CGN 전진국 대표에게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와 방향을 물었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K-CCM’에 주목한 계기가 무엇입니까?

전진국 대표(이하 전): 최근 음악 장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대중가수들도 자신의 신앙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와 명분을 먼저 마련한다면, CCM이 교회 안에 머무는 음악을 넘어서 대중문화 콘텐츠로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K-POP을 비롯한 한류 문화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지금이 K-CCM이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통로로 확장할 수 있는 적기라고 여겼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처럼, 지금이 추수의 때라는 확신을 가지고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K-CCM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힐링보이스’를 기획했습니다.

‘힐링보이스’는 기존 대중 오디션 프로그램과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전: ‘힐링보이스’는 심사위원을 ‘힐링멘토’로, 참가자를 ‘보이스’라고 부릅니다. 호칭부터 기존 오디션과 다릅니다. 힐링멘토는 단순히 보이스의 실력을 평가하는 심사위원을 넘어 음악적 성장을 돕고, 영적인 부분까지 돌보며 희망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연 방식도 다양합니다. 흥대 길거리 버스킹, 교회 특송, 장애인시설 노래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특별로 진행하며 팀워크를 발휘하게 됩니다.

또한 2라운드부터 발생하는 탈락자에게는 ‘탈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경연에서

의 탈락을 끝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더 일찍 파송하는 과정으로 바라보며 함께 축하한다는 개념을 담았습니다.

매회 수준급의 라이브 세션도 ‘힐링보이스’만의 차별점입니다. 무엇보다 국악, 록, 뮤지컬, 힙합 등 다양한 장르로 기존의 CCM을 재해석하며 저마다의 개성과 음색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양한 캐릭터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인 만큼 경쟁이 불가피한데,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심사합니까?

전: ‘힐링보이스’는 신앙만으로 보이스를 평

가지 않습니다. 총 5명의 힐링멘토(송정미, 김조한, 소향, 김영우, 조혜련)가 심사를 맡습니다. 신앙을 기본으로 하되, 기성 가수들과 견주어도 손색없는 음악적 실력을 갖췄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합니다. 무엇보다 참가자들은 경쟁하기보다 서로를 함께 응원해주며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통의 목표를 통해 참여하는 모두가 동역자의 관계가 되어가는 것 같아 단순히 음악적 심사나 경연의 장이 아닌 은혜가 넘치는 감동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힐링보이스’라는 프로그램명에 담긴 의미도 궁금합니다.

전: 프로그램 슬로건처럼 ‘힐링보이스’는 세상을 치유하는 목소리가 되고자 합니다. 참가자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찬양에 담긴 위로와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고, 새로운 희망을 전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 ‘힐링보이스’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무엇보다 CCM이라는 음악 장르를 통해 기독교인을 넘어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위로와 복음을 전하며, 문화와 복음이 만나는 접점을 넓혀가고자 합니다. ‘힐링보이스’가 그 장(場)을 열어 찬양을 통한 문화의 변화를 이끌고, 젊은 세대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모 전도, 이렇게 하세요

태도가 먼저다!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다. 부모님의 삶과 정서, 오랜 세월 쌓아온 가치관까지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어려움의 해결책은 ‘부모라는 완성된 세계를 이해하기’에서 찾아야 한다.

첫째, 복음의 첫 문장은 “믿으세요”가 아니라, “미안해요”다.

부모님께 자녀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품안의 자식’이다. 그런 자녀가 갑자기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며 설득하려 들 때, 부모님은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낀다. 전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자녀의 ‘변화된 태도’다. 신앙을 가진 이후 자녀가 더 겸손해지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넬 때 부모님의 ‘완성된 세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실전에서 적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과거의 상처를 먼저 꺼낸다. “그때 제가 철이 없어서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해 드렸어요. 죄송해요”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해

보는 것이다. 그다음, 작은 변화를 지속한다. 꾸준히 예의 바르고 성실한 자녀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최고의 전도 전략이다. 부모님은 우리의 ‘성경 지식’이 아니라, ‘태도의 변화’에 감동해 교회 문턱을 넘는다.

둘째, 말의 내용보다 관계의 ‘안전감’이 먼저다.

부모님께 복음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향한 지적, 혹은 변화를 요구하는 압박으로 종종 느껴질 수 있다. 이럴 때 부모님이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교리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래도 이 관계는 변하지 않는구나’라는 확신이다. 그러므로 전도의 첫걸음은 말이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확실한 안전감을 먼저 심어 주는 일이다. 부모님이 방어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신앙 자체에 대한 거부보다는 관계가 흔들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반응일 때가 많다. 자녀가 할 일은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을 걷어 내는 것이다.

실전에서 적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화평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형제가 연합해 동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부모님께 자주 보여 주는 것이다. 신앙 덕분에 가족이 더 화목해졌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어떤 설명보다 강력하다. 그다음, 비언어적 신호를 관리한다. 말의 내용보다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말투가 더 강력한 안전감을 준다. 같은 말도 조금씩 다르게 하면 부담이 되지만, 여유 있게 건넌다면 위로가 된다. 마지막으로, 일관성을 유지한다. 안전감은 한 번의 다정한 말로 완성되지 않는다. 오늘은 따뜻했다가 다음 날은 신앙을 재촉한다면 오히려 불안을 키운다. 한결같은 태도가 가장 설득력 있는 언어다.

셋째, 부모님의 거절은 ‘거부’가 아니라, ‘두려움’의 신호다.

부모님의 단호한 거절이나 화난 목소리에 상처받지 말아라. 그것은 자녀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평생 지켜 온 자신의 신념이 무너질까 봐 느끼는 본능적인 ‘두려움’의 신호다.

실전에서 적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격’이 아니라, ‘방어’로 이해한다. 부모님이 낯선 반응을 보일 때 맞서 싸우지 않는다. 부모님이 왜 두려워하시는지를 먼저 헤아리고, 그 불안을 잠재울 위로를 제공한다. 그다음, 영적 배짱을 가진다. 당신이 먼저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부모님의 날카로운 거절은 ‘나를 더 따뜻하게 안심시켜 달라’는 마음의 SOS다.

* 부모 전도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부모 전도 101(2026), 두란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민 목사
(전도사역본부장)

온소망공동체
일본

그 순간, 내 마음은 천국!

일본 교토 아웃리치 광고를 본 순간, 남편과 나는 한목소리로 “신경하!”라고 말했다. 대학청년부 시절부터 아웃리치를 사모하며 참석했었는데, 출산 이후 아웃리치를 가지 못했다. 그 시간 동안 말할 수 없는 목마름이 있었다. 뜨겁게 기도하고 교회 문이 닫히는 시간까지 아웃리치를 준비하던 날이 있었는데, 아이를 키우며 삶의 균형을 맞추다 보니 5년 가까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웠다. 단절된 듯 해갈되지 않는 아쉬움을 이제는 끌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우리는 성인공동체로 옮긴 이후 첫 번째 아웃리치를 신청했다.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동안 기대와 염려가 교차했다. ‘성인공동체에서 가는 첫 번째 아웃리치인데 패기 넘치게 아이를 데려간다고 신청한 것은 아닐까? 연일 뉴스에 나오는 폭염에 32개월 아이를 동반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갔다가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하나? 팀에 누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고민이 이어졌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드디어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아웃리치에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공존했다. 주변에 “더운 날씨에 아이가 아프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라며 연신 기도를 부탁했다.

수많은 걱정과 기도를 배낭처럼 짊어진 채, 우리 팀이 교토 땅을 밟았다. 햇빛 아래 서면 숨이 막힐 만큼 더웠다. 첫 일정으로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던 터인 ‘난반지’를 방문했다.



온소망공동체 아웃리치팀이 카모가와 강변에서 버스킹하며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다.

사유지에 안내판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목사님께 “이제는 사유지가 되어 표식만 남아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속상한 마음이 잠시 들었다. 그러나 더위를 뚫고 도착해 안내판을 보는 순간, 오히려 ‘감사하다’는 마음이 차올랐다. 복음에 우호적이지 않은 일본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겼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며, 마치 나를 위해 남겨두신 듯한 베풀어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 땅을 밟는 전도자마다 위로와 힘을 얻도록 모든 것

을 예비해두셨다. 그렇기에 우리는 일본 선교를 포기할 수 없음을 가슴 깊이 느꼈다.

카모가와 강변에서 버스킹하며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사역이었다. 나는 아이를 돌보느라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해 속상했다. 그런데 해가 넘어가는 강가에서 기타를 치고 세이커를 흔들며 목이 터져라 찬양하는 팀원들과 웃는 얼굴로 전도지를 나눠주는 이들, 찬양 소리에 맞춰 춤추는 아이들을 한 발짝 멀리서 바라보는 순간 주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내 마음을 채웠다. 하나님이 그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통해 나타내고 계셨고, 그 순간 내 마음은 천국이였다.

말이 통하지 않는 일본인에게 다가가 전도지를 전하는 아이와 찬양 가사도 모르면서 신나게 춤추는 아이의 모습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 처음에는 아이를 데리고 아웃리치를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나의 교만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계셨다. 용기 낼 수 없었던 나를 위해 하나님은 아이를 가장 든든한 동역자로 보내주셨다.

‘안주함’이라는 영적 관성을 끌어내는 것은 참 어렵고 두려운 일이었다. 성인공동체로 옮기며 새로운 교회에 처음 적응하는 듯 머뭇거리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명확하고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다.

두려움을 깨고 결단해 아웃리치를 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늘 우리 가정의 기도로 응원해 주는 공동체 식구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



임진영 성도
(온소망공동체)

2000선교본부 선교사멤버케어팀
몽골

몽골 힐링캠프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순종’이라는 단어에서 시작됐다. 선교사멤버케어팀 일곱 명과 나의 영적 아버지 같은 김창욱 전도사님 부부와 함께 몽골 울란바토르 징기스칸 공항에 첫발을 내디뎠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산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였고, 노아는 순종했다. 요나는 결국 순종해 니느웨로 갔으며,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에 순종하셨다.

올해 2000선교본부 선교사멤버케어팀의 몽골 힐링캠프 계획이 발표됐을 때, 제주도와 몽골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예산만 마련돼 있었다. 영어 ‘AND(그리고)’가 아닌 ‘OR(또는)’이었다. 그러나 “건너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한 몽골 선교사님의 요청에 우리팀은 AND(그리고)를 선택했다.

나 역시 재정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재정의 100%를 채워주시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순종에 초점을 맞추고자 재정의 채워짐보다 ‘영혼’에 관심을 가졌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지인이 “왜 계획도 잡히지 않았고 재정도 채워지지 않은 몽골에 가느냐”고 물었다.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간다”고 대답하셨다.

몽골에 첫발을 내디딘 첫날, 한 목사님의 자녀가 눈에 들어왔다. 너무 놀랍게도 분명히 가지고 오지 않았던 몽골어 전도지 한 장이 성령의 바람이 가져다준 것처럼 힐링캠프 현장에



선교사멤버케어팀이 몽골 생명샘교회에서 특순하고 있다.

놓여 있었다.

남은 시간은 반나절이었다. 나는 19세 때까지 누구에게도 예수님에 대해 소개받지 못한 채 다른 종교를 믿으며 살았다. 그렇기에 오늘날 영혼에게 예수님이 나와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막연하고 부족해 보였지만, 하나님은 하나씩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보며 이번 걸음이 단순한 힐링캠프가 아니라 한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몽골의 영혼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몽골 사역자 두 가정과 가진 나눔의 시간에 질문했다.

“어떻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셨나요?” 이 질문에 한 사역자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고백이 내 마음을 깊이 터치했다.

“저는 젊은 시절 한국에서 근로자로 살 때

온누리M센터에 가서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그때 저는 무종교인이었습니다. 추석 때 하비스트 모임에 가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는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많은 몽골 영혼이 온누리M센터의 하비스트 모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있다는 것을 한 사역자의 입술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몽골 힐링캠프를 위한 ‘순종’이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나를 인도했고, ‘예수’를 최고의 선물로 전하며, 그 영혼을 위한 ‘중보자’로 변화시킬 성령님을 기대하게 했다.

몽골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부흥’이다. 인천온누리교회에서 예배드리며 부르고 있는 ‘부흥을 주소서!’라는 찬양이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알게 하신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부흥’의 바람이 아웃리치 첫날 세미나 때 사방에서 불어오던 몽골의 바람처럼,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기를 소망한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박영환 선교사
(2000선교본부)

“부흥의 바람 불게하소서!”

온민음공동체
베트남

우리는 여호수아 탐험대!

온민음공동체가 베트남 호치민으로 여름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 사역을 하는 ‘해피프렌즈센터’와 ‘호치민은 우리교회’를 방문했다.

올봄 베트남 여름 아웃리치를 결심하던 순간부터 준비와 진행 과정,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 이번 베트남 여름 아웃리치에서 내가 그리고 우리 팀이 받은 은혜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온 가족이 함께 선교의 길을 가게 된 것이다. 2년 전, 내가 러브소나타와 수련회에 혼자 참여하면서 남편과 크게 다툰 적이 있었다. 10여 년 만에 누리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었지만, 어린아이를 둔 상황에서 나 혼자 움직인 것이 남편에게 큰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다음 해외선교는 남편이 준비되었을 때 꼭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했었다. 20년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남편과 자녀와 함께 베트남 아웃리치에 참여하게 하셨다.

둘째, 아웃리치 준비 과정 자체가 은혜였다. 아무것도 모른 채 베트남 아웃리치 참가신청을 했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게 될지도 몰랐다. 팀장님이 우리 가정에 어린이 사역을 맡기셨다. 사실 나는 20년, 남편은 8년을 차세대 교사로 섬겼다. 그 시간 동안 어린이 사역의 흐름과 나의 강점과 약점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온민음공동체 아웃리치팀과 그 자녀들이 찬양을 인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팀장님을 통해 우리 가정을 어린이 사역 한복판에 세워주셨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말 놀라웠다.

어린이 사역 준비 과정은 정말 기쁨 그 자체였다. 교사 안식년을 보내는 중이라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직접 만들어야 했지만, 정말 즐거웠다. 참고할 수 있는 교사 가이드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 AI의 도움을 받아 하나씩 준비하면서 ‘여호수아 탐험대’라는 이름을 완성시켰다. 혼자 고민하고, 기획하며, 준비한 시간

만 100시간이 넘었다. 하지만 그 순간이 힘들기보다 손을 놓을 수 없을 만큼 재미있고 기뻐다. 동역자들도 보내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사역을 준비할 수 있었다.

셋째, 베트남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다. 베트남의 어린이들과 부모님, 그들을 섬기는 선교사님과 현지 사역자들, 그리고 그들을 섬기러 온 우리 팀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심히 만져주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보게 됐다. 상처받았던

아이들의 눈빛이 어느새 생기로 가득 찼고, 양육을 어려워하던 부모님들에게는 사랑으로 자녀를 세워 가는 방법을 알려 주셨다. 지쳐있던 선교사님들에게는 사역의 가능성을 다시 보게 하셨고, 실패와 낙망 가운데 있던 영혼에게는 새로운 길과 희망을 보여 주셨다.

나도 한 가지를 깨달았다. 힘들고 희생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함께 웃고 먹고 쉬며 사랑을 나누는 것 또한 선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섬기는 사람이든, 섬김을 받는 사람이든 우리 모두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나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수 1:9).

베트남에서 아이들과 나누었던 이 말씀처럼,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나 역시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었다. 아웃리치에서 만난 아이들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호수아 탐험대’가 되기를 기도한다.



손진아 성도
(온민음공동체)

서대문공동체
몽골

밝은 미래를 향하여

“... 많은 사람들을 의로 이끄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단 12:3).

2026년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4박 5일 동안 서대문공동체 팀원 14명이 몽골 울란바토르를 다녀왔다. 이번 아웃리치의 주제는 ‘밝은 미래를 향하여’였다.

몽골 땅을 밟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만남과 사역을 예비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내딛는 걸음마다 은혜와 기쁨을 부어 주셨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우리가 맡은 사역은 몽골 밝은미래학교 수련원에서 열린 ‘교원 리더십 캠프’를 섬기는 것이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신앙이 부족한 현지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음세대를 이끌 교사로서 자신의 사명과 비전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AI 시대의 기독교 세계관과 학생 지도를 위한 AI 활용법, 척추 위생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 운동 치료, 생명의 신비와 효모의 숨소리 실습, 구강 관리, 대중문화 속 영적 분별 등 다양한 강의가 이어졌다. 찬양과 말씀, 레크리에이션, 캠프파이어와 교제로 배움의 풍성함을 함께 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우리의 목적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나 프로그램 진행에 있지 않았다. 한 사람의 교사가 차세대의 미래를 세운다는 믿음과 “당신은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라는 확신을 전하는 것이었다.

매일 아침에는 QT 말씀으로 마음을 나누고, 사역을 마친 뒤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돌



서대문공동체 아웃리치팀이 ‘교원 리더십 캠프’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아보며 감사기도를 했다. 교사들을 위해 준비한 작은 선물과 여성 팀원들이 밤마다 정성껏 차린 따뜻한 애찬은 모두에게 큰 기쁨이자 위로였다. 남성 팀원들이 준비한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중창은 교사들의 마음에 자신감을 새겼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는 맡겨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고백이었다.

가장 깊은 울림을 준 순간은 마지막 ‘디브리핑’ 시간이었다. 한 현지 남성 교사가 먼 타국에서 자신들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내어 찾아

와 준 한국인들의 모습에서 진심을 느꼈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 한마디에 우리 모두의 마음도 뜨거워졌다.

강의와 선물, 여러 프로그램을 정성껏 준비했지만, 결국 그들의 마음에 남은 것은 프로그램의 수나 내용이 아니라, 진심과 사랑이었다. 몽골어로 ‘진심’은 ‘친세트겔(Чин сэтгэл)’이라고 한다. 언어도 문화도 달랐지만, 진심은 통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한 사람에게 다가갈 때, 하나님은 언어와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사람의 마음을 만지셨다. 아직 믿음이 없던 한 현지 남성 교사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은혜의 순간을 맞이하기도 했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열매는 바로 ‘진심’이었다. 4박 5일은 너무 짧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짧은 시간도 충분했다. 우리가 전한 말씀 한 소절, 안수하며 드린 기도 한번, 따뜻한 미소와 작은 선물 하나가 밝은 미래를 세우는 씨앗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몽골을 향한 마음을 주신 것도 은혜였다. 좋은 동역자와 선교사를 만나게 하신 것도 은혜였다.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신 것도 은혜였다. 무엇보다 작은 진심으로 한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심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아웃리치는 끝났지만, 하나님이 몽골에서 시작하신 일은 이제부터다.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기도는 그곳에 남아 있다.

몽골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시고, 그 길에 우리를 진심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린다.



이종민 집사
(서대문공동체)

인천 사랑공동체
안산 안디옥교회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은 이번에도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새 일을 행하셨다. 나는 그저 손가락 하나 얹었을 뿐인데, 넘치는 은혜를 경험했다.

이번 아웃리치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안산 안디옥교회와 함께한 1박 2일의 여정이었다. 낯선 환경 속에서 마치 인도네시아 현지와 와 있는 듯한 은혜로운 시간이 시작되었다.

아웃리치 첫날 저녁 예배에서 인도네시아어와 한국어 찬양이 어우러졌다. 처음 듣는 인도네시아어 찬양이었지만 한 마음으로 찬양했다. 언어는 달라도 성령 안에서 모두 하나 되어 함께 부르는 찬양은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듯했다.

예배 이후 거행된 세족식에 앞서 인도네시아어로 준비한 간증문을 낭독했다. 아빠의 부재로 하나님을 왜곡되게 생각했던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이야기와 이주민 진료 봉사를 하면서 누린 은혜를 나누었다.

매일 밤 “내가 간증을 왜 한다고 했을까”, “고생을 사서 한다”라며 불평의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간증으로 일하시기를 계속 기도했다. 간증문을 반복해서 읽다 보니 나처럼 연약한 사람을 세워 간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 눈물이 났다. 매일 밤 연습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였고, 아웃리



인천온누리교회 사랑공동체 아웃리치팀이 안산 안디옥교회 지체들의 발을 씻기고 있다.

치를 준비하며 구별된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었음을 깨달았다. 큰 실수 없이 간증을 마칠 수 있었던 것도 은혜였다.

세족식에서는 먼저 선교사님 부부의 발을 씻겨 드렸다. 그리고 안디옥교회 지체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발을 씻기자, 인도네시아 형제들이 눈물을 쏟았다. 한국 지체들의 섬김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받았던 상처가 회복되었다는 고백이 이어졌다. 씻기는 이와 씻김을 받는 이, 곁에서 중보

기도하는 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언어도 문화도 달랐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였다.

주일예배 찬양 시간에는 전날 저녁과는 또 다른 은혜가 부여졌다. 선교사님이 전한 <사도행전> 11장 19~26절 말씀은 꼭 나를 향한 말씀 같았다. 누군가를 세워 주고, 격려하며,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돕는 사람, ‘바나바’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했다. 하나님이 이미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다.

늘 그렇듯 나는 섬기러 간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언제나 내가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더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돌아왔다.

이번 아웃리치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귀한 사역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든지 보여 주셨다. 하나님은 서로 다른 지체들을 한 팀으로 세워 각자 가진 은사로 최상의 하모니를 이루게 하셨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며, 하나하나의 조각들이 모여 완벽한 작품이 되게 하셨다.

시설을 관리하는 위원장님의 마음을 열어서 점심까지 먹고 퇴실하게 하시고, 비 예보와 달리 물놀이하기에 좋은 날씨를 허락하신 것도 감사했다.

다 나열할 순 없지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선교하시는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뽕귀 쿠파! 하나님 최고!”



김명희 집사
(인천온누리교회)

양재 유아부, 과천의왕 연합
보은 어린이 캠프

아웃리치는 천국잔치

차세대 교사로 섬긴 지 10년 동안 여러 이유로 유아부 아웃리치에 함께한 것은 세 번 뿐이었다. 삶이 바쁘다는 이유, 시간이 없다는 이유, 유아부를 섬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내 마음 한구석에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인도네시아 아웃리치에서 만난 한 선교사님의 “아웃리치는 천국잔치를 경험하는 것”이라는 한 마디가 전환점이 됐다. 그전까지 아웃리치는 내 노력과 정성으로 무언가를 준비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선교사님의 그 말로 인해 아웃리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일하시고,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것임을 비로소 알게 됐다. 그동안 여러 차례 아웃리치를 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다.

이번 유아부 아웃리치는 차세대 여름성경학교 ‘어드벤처’를 가지고 지역교회를 찾아가 여름캠프를 진행하는 것이 주된 사역이었다. 올해 13년째를 맞이하는데, 언제나 그렇듯 어린이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다.

나는 지난 10년 동안 아내와 함께 스토리텔러로 섬겼다. 그런데 아내의 출산으로 인해 처음으로 대그룹 진행을 맡아서 막막함이 컸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가 우선되었을 때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고민을 내려놓았다.



양재온누리교회 유아부와 과천의왕공동체 아웃리치팀이 어린이 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사실 나는 그동안 무언가를 기획하고 주도하는 자리는 부족함을 알기에 피해 왔는데, 이번 여름 캠프의 주제인 <여호와>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를 붙들고 한 걸음 내디뎠더니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했던 생각들을 채워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보내 주셨다.

이번 유아부 프로그램은 전혀 다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많은 교역자와 선생님의 도움이 있었다. 그 감동이 보은 아웃리치까지 이어

졌다. 보은에서는 또 다른 아이디어들을 채워 주셨고, 또 다른 감동도 있었다. ‘우리 참 열심히 했고, 고생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아웃리치 첫날 저녁 작은 일이 있었다. 그만 화장실 문이 떨어졌다. 다행히 시골집에 있던 공구들로 어렵지 않게 고칠 수 있었다. 삭을 대로 삭아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던 문이

하필 우리가 방문한 그때 떨어진 것이었다. 문을 고치고 있는 동안 수련원의 사모님이 “여호와 이레”를 외치셨다. 하루라도 늦게 문이 떨어졌더라면 시골 산중에 사모님 홀로 계시는데 난감한 상황이 되었을 것이었다. 사모님의 “여호와 이레” 외침처럼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다.

아웃리치는 분명 ‘천국잔치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나 천국잔치는 선교지에만 있는 게 아니었다. 단지 바쁜 삶과 분주한 마음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가리고 있을 뿐이다.

삶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선하면 그 천국잔치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다. 내 생각과 걱정, 분주함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우리가 있는 곳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천국잔치이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두려움과 망설임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할 때 모든 것을 행하시는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었다. 보은 아웃리치의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한순간의 경험이 아니다. 앞으로 모든 순간에 감사와 예배가 가득하기를 기도한다.



이창엽 교사
(양재유아2부)



이웃들에게 전달할 쌀을 트럭에 싣고 있다(2025 사르밧 프로젝트).

사르밧 프로젝트 10월 11일까지 접수

순과 개인, 현금 및 나눔대상자 신청

2026 사르밧 프로젝트 접수를 10월 11일(일) 마감한다. 동참을 원하는 순과 개인은 현금 및 나눔 대상자 접수를 서둘러야 한다. 사르밧 프로젝트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추수감사절 감사의 쌀’과 ‘성경책’을 전달하는 사역이다.

지난해에는 국내 개인과 기관에 백미 20kg 3,757포와 성경책 13,094권을 전달했다.

현금 참여를 원하는 순 또는 개인은 10월 11일(일)까지 각 캠퍼스 지

정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현금액은 쌀 20kg 한 포대 가격인 65,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형편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순 단위로 참여할 때는 입금자명에 공동체, 다락방, 순 이름을 일곱 자 이내(예: 한강마리아2순)로 적고, 개인은 이름과 생년월일(예: 온누리851006)을 적으면 된다. 송금계좌는 서빙고 하나은행 573-91019-14805, 양재 하나은행 573-910021-35705다. 다른 캠퍼스는 지정계좌를 이용하면 된다.

나눔 대상자 추천은 10월 11일(일)까지 공동체를 통해 이메일로 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 순위는 온누리교회 공동체 소속 성도, 외부 기관, 외부 개인 순이다. 신청서를 보낼 때는 공동체 담당목사와 대표장로를 참조인으로 포함하고, 본문에 ‘승인 확인 문구’를 꼭 기록해야 한다. 이메일 주소는 서빙고 26thanksgiving@naver.com, 양재 hyomin2021@naver.com이다.

문의: 02-3215-3434(서빙고), 각 캠퍼스 담당자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NGO 더멋진세상, 베네수엘라 2차 긴급구호

NGO 더멋진세상이 지난 9월 14일(월)부터 19일(토)까지 베네수엘라 서북부 라과이라와 수도 카라카스에서 지진 피해 주민을 위한 2차 긴급구호를 실시했다. NGO 더멋진세상 김광동 대표, 이정혜 과장, 오은지 간사, LA온누리교회 이정엽 목사(더멋진세상 LA지부장)가 참여했다.

NGO 더멋진세상은 베네수엘라 2차 긴급구호에서 라과이라 지역 이재민에게 의약품(3,000여 명)과 위생용품 키트(700여 명)를 전달했다. 카라카스 및 마라카이 지역 소방관

142명에게는 부츠와 유니폼을 지원했다. 지진 피해가 가장 컸던 라과이라주 바르가스시의 공식 요청에 따른 의약품 및 집강형 삼륜 오토바이 등도 지원했다. 이번 2차 긴급구호 재원은 지난 8월 국내외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봉헌한 비전헌금과 베네수엘라 긴급구호 모금 캠페인 후원금 등으로 마련했다.

김광동 대표는 “지진으로 무너진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NGO 더멋진세상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 홍하영 기자

복음과 인류의 미래!

아시아선교협의회, 31개국 200여 명 참가

제15차 아시아선교협의회(AMA) 대회가 지난 9월 14일(월)부터 18일(금)까지 인천온누리교회에서 ‘복음과 인류의 미래’ (사 43:19-20)를 주제로 열렸다. 31개국 선교협의회 지도자, 선교단체 지도자, 선교학 교수, 선교학자, 선교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5차 아시아선교협의회(AMA) 대회에서는 성경 주해와 주제 강의, 세계 선교 네트워크 보고 및 워크숍, 특순, 국가별 보고, 기도회, 설교 등이 이어졌다. 박성진 박사, 바나바스 문(Barnabas Moon) 박사, 아슈쿠마르(Ashok Kumar) 박사, 로렌스 고(Lawrence Ko) 박사 등 14명의 강사가 강의했다.

설교는 14일(월) 이재훈 위임목사, 15일(화) 화종부 목사(남서울교회), 17일(목) 백신종 목사(부산 부전교회)가 했다.

이재훈 위임목사는 ‘세 도시, 한 복음’ (롬 15:22-23)을 주제로 설교했다. 이목사는 “아시아 각국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구제와 교회 갱신, 전방개척 선교를 함께 감당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시아선교협의회(AMA)는 1975년 창립된 아시아 지역 선교단체 연합체다.

/ 홍하영 기자

2026 온누리썸머북케이션 시상식

심사위원특별상, 감동상, 은혜상 등 24명 수상

온누리교회 도서관(이하 온누리도서관)이 개최한 독후감 대회 ‘2026 온누리썸머북케이션’ 시상식이 지난 9월 13일(일) 온누리도서관에서 열렸다. 노치형 목사(온누리도서관 담당), 곽태일 장로(온누리도서관 담당), 임희창 장로(심사위원), 온누리도서관 리더십 및 봉사자, 독후감 대회 참가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2026 온누리썸머북케이션’ 시상식은 곽태일 장로 기도, 노치형 목사 설교, 임희창 장로 심사평, 시상

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시상식에서는 심사위원특별상 김주연, 김학민, 최상미, 감동상은 권명진, 김학민, 동두봉, 박은미, 조옥환, 최성윤, 허은진, 은혜상 강영주, 김미란, 김정미, 김효주, 박민정, 복선희, 소민지, 이경미, 이종선, 임근삼, 전영주, 전혜영, 정리훈, 조영선, 참가상 유경은이 수상했다.

독후감 대회 수상작은 QR코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홍하영 기자

〈생명의 삶〉 앱 ‘360일 이용권’ 이벤트

〈생명의 삶〉 앱 ‘360일 이용권’ 이벤트를 한다. 10월 31일(토)까지 〈생명의 삶〉 앱에서 ‘360일 이용권’을 구매하면 사용 기간 40일을 추가로 제공해 총 400일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장기적인 말씀 묵상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권은 30일 5,900원, 90일 17,400원, 360일 64,800원이다. 〈생명의 삶〉 앱은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의: 02-2078-3230

‘하트스쿨 사역자 과정’ 참가자 모집

하트스쿨 사역자 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17일부터 12월 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양재온누리교회 JDS홀과 충성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하트스쿨 사역자 과정에서는 2027년 상반기 하트스쿨 ‘테이블 리더’로 활동할 사역자들을 양성한다. 3~4주차에는 서산온누리교회로 현장 실습, 5주차는 스태프 워크숍, 8주차는 수료예배를 드린다.

문의: 010-3710-9781

“믿음의 길 함께 걸어요!”

대전 차세대, 〈천로역정〉 독후감·독후화 공모전

대전온누리교회가 8월부터 10월 까지 두 달 동안 수요예배를 ‘다음세대와 함께하는 천로역정’을 주제로 드린다. 그 일환으로 대전 차세대에서는 〈천로역정〉 독후감·독후화 공모전 ‘믿음의 길 함께 걸어요!’를 개최했다. 대전 차세대 예수님의꿈아이, 꿈이자리라는꿈 소속 어린이들이 〈천로역정〉을 읽고 묵상하며 글과 그림으로 믿음의 여정을 표현했다.

공모전 시상식은 9월 20일(일) 대전 차세대 각 부서 예배에서 한다. 출품된 작품들은 온라인 갤러리에서

전시한다. QR코드에서 감상할 수 있다. 대전 차세대 〈천로역정〉 독후감·독후화 공모전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예쁨 소망의 길잡이상 4명(김주안, 오하진, 최윤서, 김소은), 꿈땅 독후감 믿음의 순례자상 1명(박하늘), 소망의 길잡이상 2명(오하임, 나시은), 기쁨의 걸음상 2명(박윤재, 조연아), 독후화 믿음의 순례자상 1명(오유하), 소망의 길잡이상 2명(홍지후, 최라엘), 기쁨의 걸음상 2명(박하은, 최라은).

/ 홍하영 기자



‘식사를 합시다’ 행사 개최

서빙고 이웃사랑팀, 홀몸 어르신에게 식사 대접

서빙고 이웃사랑팀이 9월 20일(일) ‘식사를 합시다’ 행사를 개최한다. 추석을 앞두고 홀몸 어르신들 가정에서 방문해 따뜻한 한 끼와 정(情)을 선물한다.

서빙고 이웃사랑팀은 연 2회 ‘식사를 합시다’ 행사를 열고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다. 성도들이 음식을 직접 준비하거나 배달

음식, 외식으로 어르신들과 식사를 함께한다. 이번 행사에는 한강공동체에서 후원한 수건과 생활용품도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서빙고 이웃사랑팀은 매월 마지막 일요일에 홀몸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지역상품권, 사랑의 상자 전달, 식사 섬김, 집수리 등을 한다.

문의: 010-9802-2395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QR코드를 찍으면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양재 만남의 잔치

일시: 9월 20일 오후 3시 30분 양재온누리교회 드림홀

강남A 박주선 유영민 이은미 정선희	이수영 이지혁 정은주 최은숙	경기A 김정옥 성하림	오혜원	서초A 김수진 한윤중	이길동 하상범	이다은 이준성 정희서	문석기 배종욱 백승혜 오수영 원유진 정경화 황신평
강남B 유계복 조재훈	고정현 기남해 김영일 명상혁	과천B 김빛나리 송아름 이용희 조윤희	이문희 이세훈 이정은 장찬욱	서초B 설경찬 손치선 한종석	송파B 김미양	양재B 김정아 황윤복	온누리 김현웅 조은희
강남C 김혜란 이수경	박혜미 윤석용 홍필재	도곡 김경근 김세향	분당B 김효진A	송파A 권형구 김성은 봉선희	양재A 김송희 김지선 김형렬 박기영 신재우 이경수	온소망 김도희	

‘변해가는 시대, 변하지 않는 희망을’

일본CGN, 개국 20주년 감사 집회 개최

일본CGN이 개국 20주년을 맞아 지난 9월 10일(목) 도쿄 요도바시교회에서 ‘변해가는 시대, 변하지 않는 희망을’을 주제로 감사 집회를 개최했다.

일본CGN 관계자와 성도 8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감사 집회는 나카이 노부요시 목사(동북중앙교회)가 사회를 보고, 삼보회의 일본 전통 북 연주, 뉴호프 요코하마 찬양대 찬양, 키타와 준 목사 기도, 이재훈 위임목사(CGN 이사장) ‘거룩한 낭비’(막 14:1~11) 설교, 더 브릿지팀 공연, 일본CGN 후원회 명예회장 미네노 타츠히로 목사(요도바시교회 원로목사) 감사 인사, 오오카와 츠구미치 목사(아마도 갈보리 채플 은퇴 감독목사)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수는 요도바시교회와 동경온누리그리스도교회 한일 연



사진은 지난 9월 10일(목) 개최한 일본CGN 개국 20주년 감사집회.

합 성가대가 했다.

CGN 전진국 대표는 “일본CGN의 20년은 임직원들의 노력과 일본교회와 성도들의 기도 그리고 헌신이 함께 이룬 결실”이라며 “한 편의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처음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만큼, 변

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오후 3시에는 일본CGN 후원자들과 목회자, 협력단체 관계자 100여 명이 함께 만찬회를 가졌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예수님의 증인으로!”

전도엑스포, 전도사역본부 19개 사역팀 참가

‘2026 전도엑스포’가 지난 9월 13일(일) 서빙고온누리교회 이천만광장과 양재온누리교회 원형광장에서 열렸다. 전도사역본부 19개 사역팀(맞춤전도, 해외맞춤전도, 온라인 커뮤니티, 공사랑, 호스피스전도, 스포츠전도, 문서전도, 열린새신자에 배(서빙고, 양재), 전도콜센터(서빙고, 양재), 온누리전도학교(서빙고, 양재), 전도폭발훈련(서빙고, 양재), 군선교(서빙고, 양재), 병원심방전도(서빙고, 양재))가 총출동했다.

전도엑스포에서는 사역팀별로 홍보 영상 시청 및 체험 활동 등을 하면서 사역을 소개했다. 전도사역팀 부스를 방문해 도장을 받아 온 성도들에게는 기념품 ‘복음이 진짜라면’을 증정했다.

이진경 성도(서빙고온누리교회)는 “온누리교회가 정말 많은 전도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앞으로 전도사역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약속했다.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

‘AI 시대의 제자도’

제4회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가 ‘AI 시대의 제자도’를 주제로 10월 27일(화)부터 31일(토)까지 열린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청장년이 함께 고민하고 교제할 수 있는 강의와 예배, 공모전 등이 이어진다. 31일(토) 본 행사는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 신청 방법은 추후 공지한다.

행사에 앞서 온누리교회 미래성장분과위원회에서 ‘AI 시대의 제자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제자도에 대한 인식 및 실천, 말씀 묵상(QT), 전도, 일대일제자양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AI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엇을 지키고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다. QR 코드로 접속하면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2-3215-3234

/ 홍하영 기자



결혼비전스쿨 With 4U 6기 참가자 모집

10월 10일~24일 매주 토 오후 2시

결혼비전스쿨 With 4U 6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10일부터 10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7시 도곡교육관 2층 온유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10월 2일(금)까지 QR 코드로 하면 된다. 회비는 10만 원.

결혼비전스쿨 With 4U는 성경적 관점에서 가정과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앞으로의 삶을 구체적으

로 설계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싱글과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 결혼 이후 청년부에서 성인공동체로의 정착이 필요한 커플이 대상이다. 양재 사랑공동체 대외사역팀이 주관하고, 사단법인 행개레 운동본부가 주최한다.

문의: 010-4418-7978



양재 헬로맘 임신·출산 후 스쿨 모집

10월 16일~11월 6일 매주 금 오전 10시 30분

양재 헬로맘 임신·출산 후 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10월 15일(목)까지 아이스쿨(schooli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 임신, 출산, 자녀 양육에 관심 있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헬로맘 임신·출산 후 스쿨은 말씀 안에서 아내이자 엄마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결혼과 임신, 출산, 자녀 양육의 과정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고민을 나누고,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실제적인 정보를 배우며,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실제적인 내용도 배운다. 문의: 010-5757-3427

/ 박지혜 기자



〈생명의 삶〉 정기구독 신청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온누리청년부OB, 40주년 기념 홈커밍 감사예배

10월 17일 오후 4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

온누리청년부OB(온누리 빛)가 오는 10월 17일(토) 오후 4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40주년 기념 홈커밍 감사예배’를 드린다.

온누리청년부OB(온누리 빛)는 온누리교회 청년부 출신 선교사와 목회자 등 사역자들을 섬기기 위해 모인 공동체다. 40주년 기념 홈커밍 감사예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운데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과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뜻깊은 시간을 가진다. 신청은 QR 코드로 하면 된다. 회비는 1만 원. 1986년부터 2000년까지 온누리교회 청년부를 섬겼던 성도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QR 코드 참고).



EHS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참가자 모집

10월 10일~12월 5일 매주 토 오후 1시

EHS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양재온누리교회 강의동 203호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10월 10일(토)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 교재는 두란노서점에서 개별 구매해야 한다.

EHS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은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과 자기성찰로 영적 성숙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문의: 010-4172-0850

‘Why Israel?’ 참가자 모집

‘Why Israel?(와이 이스라엘)’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양재온누리교회 JDS홀에서 진행된다. ‘Why Israel?(와이 이스라엘)’에서는 복음과 멀어지게

된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과 영적 상황을 살펴본다. 김용산 목사, 제치운 목사, 오화평 목사가 강의한다. 참가신청은 10월 16일(금)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 문의: 010-2930-2322



이와테 기도제목

- 9월 20일(일) 이와테현에 영광의 빛이 임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 9월 21일(월) 우상숭배와 어둠에 붙들린 사람들에게 구원과 참자유가 임하길
- 9월 22일(화) 일본 목회자들에게 복음의 담대함과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길
- 9월 23일(수) 사람들이 집회장에 가득 채워지고 성령의 임재 속에 변화되길
- 9월 24일(목) 이재훈 목사님과 통역 목사님이 한 영이 되어 복음이 전달되도록
- 9월 25일(금) 한국 참가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구원의 통로가 되도록
- 9월 26일(토) 한국 스태프들과 게스트들이 사역을 성령 충만으로 감당하도록

서빙고 02.793.9686 토요일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4:00 본당 일요일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등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등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등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본당 2부 오전 6:30 비전홀 월요치유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30 비전홀 화요Holy Impact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2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7:0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시간: 매주일 오전 11:20		장소: 선교관 1층 믿음홀 담당: 김철희 목사 문의: 010-5258-7525 S브릿지 예배 내용: 만 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2:00 두란노홀 문의: 010-9311-1909 장애인 공동체 누리스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사랑홀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김희연 총무(010-3204-3815)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유치부~고등부(학령기) 시간: 매 주일 오전 9:00 시온홀 문의: 김세용 팀장(010-7183-5346) 예수사랑부예배 대상: 20세 이상 청장년 시간: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홀 문의: 남주현 팀장(010-9811-7154) 꿈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미취학~중등부) 시간: 매 주일 오전 9:00 사랑홀 문의: 안선주 팀장(010-7979-4180)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일본어예배부(02-3215-3702)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B1 시온홀		영어예배 1부 주일 오전 11:30 온누리청소년센터 체육관, 2부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4 Youth Service 오전 11:30 온누리청소년센터 3층 소극장 / Love Zone(Pre-K-1st) / Joy Zone(2nd-5th) 오전 11:30 선교관 지하 2층 콘서트를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5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M미션 러시아예배 11:30 선교관 시온홀 / 몽골어예배 14:00 선교관 믿음홀 / 네팔어예배 14:00 선교관 202호(매월 첫째 주 군포 하나로) / 아랍어예배 14:00 본관 B102호(매월 첫째 주 선교관 202호) / 페르시아어예배 12:30 온누리청소년센터 강의실1 인천M미션 AllGen예배 14:30 소망홀 / 러시아어예배 14:30 믿음홀 / 중국어예배 14:40 사랑홀 / 몽골어예배 14:30 로잔홀 / 페르시아어예배 매월 첫째 주요일 11:00 로잔홀 안산M센터 ANEWS예배 1부 9:00, 2부 11:00 만나홀 / 몽골어예배 10:30 201호 / 미얀마어예배 10:30 202호 / 아랍어예배 12:00 도서관 / 캄보디아어예배 10:30 302호 / 네팔어예배 10:00 303호 / 베트남어예배 11:00 301호 / 인도네시아어예배 16:00 스타트리얼 동조합 / 우즈베키스탄어예배 14:00 301호 / 러시아어예배 10:00 온누리홀 / 필리핀어예배 14:00 온누리홀 / 태국어예배 14:00 만나홀 / 중국(청장년)예배 10:30 304호 / 대학청년부 14:00 303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11:00 305호 / 다문화 꿈방 11:00 1F		지역아동센터 / 다문화 예꿈 11:00 B101호 김포M센터 캄보디아어예배 10:30 703호 / 러시아어예배 14:00 703호 / 미얀마어예배 11:00 706호 / 몽골어예배 14:00(매월 둘째주 18:00) 706호 / 다문화 꿈방 11:00 705호 군산M센터 열방(차세대)예배 11:00 101호 남양주M센터 ANEWS예배 11:30 301호 / 힌디어예배 토요일 20:00 301호 / 네팔어예배 토요일 20:00 304호 / 캄보디아어예배 11:30 304호 서산M센터 ANEWS예배 11:30 비전홀 /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비전홀 평택M센터 몽골어예배 11:00 2층 본당 / ANEWS예배 13:30 4층 열방홀 / 파워웨이브 11:00 4층 열방홀 / 다문화 꿈방 11:00 2층 차세대실 / 둔포 차세대 토요일 14:00 둔포성결교회 2층 화성M센터 캄보디아어예배 10:30 1센터 301호 / 네팔어예배 10:30 2센터 202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00~11:00 장소: 서빙고 꿈아이홀, 양재 꿈터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를 운행		시안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서빙고 대청어머니기도모임 대학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본관 B102호 문의: 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조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4561-5192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30-8:00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 문의: 010-5250-1233
---	--	--	--	---	--	--	--	---

양재 02.573.9686 토요일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일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3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초 기념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초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일동제약 B1 11:3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1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1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고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영아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2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1:5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사랑홀(숙명여고 강당)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고등부~20대) 시간: 매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우해진 팀장(010-9288-7041) 예수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장년 30세 이상) 시간: 매 주일 오전 11:30 비전홀B 문의: 강주희 팀장(010-4902-1022) 프랑스어 예배 설교: Samuel Hatangimana Maxime Szustak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590-0059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정진모 목사 일시: 주일 오후 1:5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경찬홀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50-9:00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JDS홀 문의: 010-6422-8376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부천 032.322.9686 토요일주일예배 10:00 본당 일요일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장애인예배 예수사랑부 주일 9:00 꿈아이홀 / 사랑부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자동차백화점 506호
--	--	---	--	---	--	---	--	---

수원 031.895.6500 일요일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명지대학교 60주년 채플관 새벽예배 월~금 5:3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수요성령집회 19:3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대학청년(주일) 14:0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차세대예배(명지대학교 학생복지관) 영아 1부 9:00 / 영아 2부 11:30 / 유아 1부 9:00 / 유아 2부 11:30 / 유치 1부 9:00 / 유치 2부 11:30 / 유년 1부 9:00 / 유년 2부 11:30 / 파워웨이브 1부 9:00 / 파워웨이브 2부 11:30 차세대예배(명지대학교 창조예술관) 초등 1부 9:00 / 초등 2부 11:30 / 소년 1부 9:00 / 소년 2부 11:30		대전 042.825.3642 토요일주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일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세종교육관 408호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30 본당/5:30 세종교육관 408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 유년부 11:30 402호 / 세종교육관 소년부 11:30 411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031.515.3521 토요일주일예배 10:30 B2 본당 일요일주일예배 1부 9:00 B2 본당 / 2부 11:30 B2 본당 / 3부 13:50 B2본당 / 4부 (대학청년) 16:00 B2 본당 행복한하나예배(탈북민) 11:00 B1 소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B2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B2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B2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 1부 9:00, 2부 11:30 꿈아이홀(3층) / 유치 1부 9:00, 2부 11:30 꿈이들홀(3층) / 꿈팡 1부(초1~초6) 9:00 드림홀(2층) / 유년 11:30 드림홀(2층) / 초등부 11:30 비전홀(4층) / 파워웨이브 1부(초1~고3) 9:00 비전홀(4층) / 중등부 11:30 교육관 믿음홀(3층) / 고등부 11:30 교육관 소망홀(3층)		평택 031.651.9680 토요일주일예배 10:20 본당 일요일주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30 본당 대학청년(주일) 14:30 본당 영어예배(주일) 11:30 선교관 화평홀 영어예배(주일) 키즈워십 9:30 선교관 화평홀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11:30 3층 꿈팡 초등부실 / 유년부 11:30 3층 꿈팡 유년부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선교관 기쁨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본당		인천 032.437.9686 토요일주일예배 9:50 본당 1, 2층 일요일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3:50 본당 1, 2층 대학청년 16:00 본당 1, 2층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샤이닝홀 / 유아부 9:00, 11:30 누리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꿈팡3부 13:50 드림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3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본당 1, 2층 새벽예배 월~금 5:30 본당 1, 2층
---	--	---	--	--	--	---	--	---

강동 02.475.9686 토요일주일예배 10:30 본당 일요일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프라미스(본당), 온유대학부(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드림홀 / 초등부 11:30 사랑홀 / 중고등부 9:0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예배 10:30 본당 금요기도집회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20:00 본당 새벽예배 6:20 본당		용인 031.331.8171 토요일주일예배 9:00 김사무엘홀 일요일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김사무엘홀 대학청년 14:00 박모세를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피드홀 / 유아부-유치부 11:30 위더스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길보른홀 / 중등부-고등부 11:30 박모세를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펠홀 주중예배 수요예배 10:30 김사무엘홀 금요기도회 10:30 김사무엘홀 금요성령집회 20:00 시안홀(7~8월) 새벽예배 월~금 5:30 시안홀		영종 032.752.7937 토요일주일예배 10:00 3층 백향목홀 일요일주일예배 1부 8:00 / 2부 10:00 / 3부 12:00 백향목홀(3층) 대학청년예배 14:30 언더우드홀(2층) 새벽예배 월~금 6:0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유아부 10:00 아펜젤러홀(2층) / 유치부 12:00 아펜젤러홀(2층) / 유년부 12:00 언더우드홀(2층) / 초등부 10:00 언더우드홀(2층) / 중등부 12:00 로제타홀(2층) / 고등부 10:00 로제타홀(2층) 수요오전예배 10:30 백향목홀(3층)		제주 064.794.8090 일요일주일예배 1부 8:00 / 2부 10:00 / 3부 12:00 본당 새벽예배 월~금 6:00 본당 차세대예배 예꿈아이(미취학) 1부 10:00, 2부 12:00 / 꿈팡유년부(초1~3) 1부 10:00, 2부 12:00 / 꿈팡소년부(초4~6) 1부 10:00, 2부 12:00 / 파워웨이브 중등부, 고등부 1부 10:00, 2부 12:00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금요성령집회 20:00 본당 대학청년 누림청년부 13:30		서산 041.665.9686 일요일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본당 3부(대학청년부) 14:30 본당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11:30 드림홀 꿈이자라는팡 11:30 비전홀 파워웨이브 9:30 비전홀 주중예배 화요중보기도모임 10:30 본당 수요저녁 예배 19:30 본당 토요일선교기도모임 6:30 경찬홀
---	--	--	--	--	--	--	--	--

소천

9/15(화) 용산 박영섭 집사 부친상, 김현근 권사 시부상 고 박규현
9/15(화) 성북 최윤서 성도 모친상 고 정관순
9/15(화) 용산 김원중 집사 모친상, 강금진 집사 시모상 고 최정심
9/16(수) 일산파주 이해경 성도 모친상 고 김복수
9/16(수) 분당A 한상석 성도 부인상, 한현희 성도 모친상, 미모성 성도 시모상 고 노현숙
9/17(목) 경기A 지역별 집사 부친상, 이정현 권사 시부상 고 지계동
9/17(목) 성북 오승은 성도 배우자상 고 임재광
9/17(목) 이촌 조정민 성도 시부상 고 김인호
9/18(금) 선교재단 전기팀 김강용 팀장 부친상 고 김영근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현
기자: 김현준, 홍하영, 박지혜, 남현영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3215-3195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회차

하나은행/573-910015-15105/(복)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팀장(02-3215-3413)

온누리요양센터 이미용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치매, 중풍 등 입소 어르신(외부 미용실 이용 어려움 외상 어르신)
내용: 이미용 봉사(개인, 단체 가능)
자격: 이미용 자격증 소지자
일시: 평일 09:30~11:30 또는 13:30~16:00
장소: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온누리교회 부근)
신청 및 문의: 매일날 사회복지사(070-4489-6880)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참여자 및 대기자 모집

신청 대상 및 기간: 서울시 거주 기초연금 수급자(신청부터~12월)
내용: 환경미화, 도시락 배달, 돌봄 취약 계층 안부 확인 등
신청: 내방 신청(주민등록등본, 치매 검사 결과서 지참)
문의: 사회참여팀(02-796-7665)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 식당 배식 중, 식식 봉사자 모집(개인, 단체 가능)
일시: 중식(11:00~14:00), 석식(16:30~18:30)
문의: 강재준 사회복지사(02-3474-6080)
※점심식사 제공, 정기봉사자 우대

시립서울역북방상담소 우리동네구강관리플러스센터 봉사자 모집

내용: 치과 의료진 어시스트 및 안내
자격: 치과위생사 또는 치과위생학과 학생
시간: 오전(10시~12시), 오후 (14시~17시) / 요일 및 시간 협의
문의: 전현미 치과위생사(070-4153-4547)

재정

온누리교회협의의 헌금 매뉴에서 모바일헌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하셔서 사용하세요.

헌금은라인 안내

실입주헌금: 하나은행 573-810034-10105
주일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8205
감사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7605
해외선교헌금: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6104
절기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9004

온누리교회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청소녀수련관 3층)

상담접수: 홈페이지 신청, 전화: 02-793-2997/010-4215-3675
상담 시간: 화~금(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 상담: 개인, 부부, 아동청소년가족, 모래놀이치료, 놀이치료
PCIT(부모아동심호작용훈련), 영어 상담, 예약 필수
심리검사: 성격, 기질, 진로 및 학습유형 등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자물문 안쪽)

상담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송),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세무 상담: 둘째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광고

양재온누리교회 커피숍 정규직원 모집

모집: 양재온누리교회 커피숍 바리스타
자격: 고등학교 졸업 이상, 경력 2년 이상
우대: 바리스타 자격증 소지자
형태: 정규직
지원: 입사지원서(자유서식) 작성 후, 이메일 접수(nicholas@onnuri.org) 또는 Fax 접수(02-749-0206)
문의: 온누리선교재단 총무팀(02-3215-3102)
※ 자세한 사항은 JOB KOREA 게시 채용공고 확인

두란노서원 채용 공고

업무: 송도지점 북카페 근무자(서점 재고관리 및 식음료 제조) 1명
형태: 계약직 1명(1년, 평가 후 정규직 전환 가능), 주5일 근무 (주말 근무 가능자)
지역: 인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접수: <http://www.duranno.com/recruit>

온누리M마선 전임간사 모집(남자)

지역: 안산 온누리M센터
대상: 세례교인으로 선교에 관심 있는 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온누리교회 홈페이지 알림판 참조)
제출: onnurimission.hq@gmail.com



정은희 선교사
(아프리카 남수단)

내가 직접 갈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땅끝의 한 영혼
그리고 그곳에서 고군분투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CGN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동역자이자
후원자들의 기도와 사랑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CGN
후원신청

“CGN 후원,
선교지와 복음을 잇는 다리가 되어주세요”

CGN 드림온
브릿지

드림온브릿지는 디지털 사각지대(인터넷 보급률 50% 미만 국가 30여 개)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위성 인터넷(스타링크)을 보급하는 캠페인입니다. 인터넷 보급과 기독 OTT '풍당'을 통해 선교사님들의 영적 공급과 선교지 사역 확장에 동참하게 됩니다.



드림온브릿지
홈페이지



2005년
선교사를 위한
24시간 위성 방송
<드림온 위성 안테나>

2026년
선교지를 위한
위성 인터넷(스타링크)
<드림온브릿지>

